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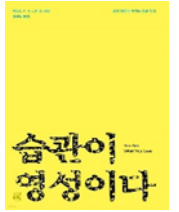
## 제 2 과.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바를 사랑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 - 세속 예전을 읽는 방법

성경: 롬 12:1-3

찬양: 찬 420 장/ 너 성결키 위해, 복음송/ 세상의 유혹 시험이

기도: 하나님이 오늘 모임 가운데 진리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도록 기도합니다.



### [성경 본문 연구 & 나눔]

1. 당신은 방문하였던 오랜 된 전통교회의 상징들이 기억나는 것이 있는가?  
혹시 당신은 쇼핑몰에서 어떤 종교적/신앙적 의미를 찾아 볼 수 있었던가?
2. 내가 은혜 받고 기억나는 예배 순서들(성만찬, 세례, 등)이 있는가?  
그 때 그 순간의 감격들을 함께 나누어 보자?
3. “이 세대를 본 받지 말라”(2 절)고 하였는데,  
사순절 기간동안 내가 버리고 싶은 습관들은 무엇인가?

## I. 예전 (Liturgy, Service Order) 의 정의

이 책에서 내가 사용하는 ‘예전’이라는 용어는 우리의 정체성과 존재 목적에 관한 궁극적인 이야기로 가득 채워진 삶의 모습을 의례/예식으로 가리키는 표현이다. 우리의 사랑과 갈망이 잘못된 방향을 가리키는 까닭은 나쁜 사상에 속아서가 아니라, 변형시키는 삶의 예전(습관)에 몰입해 왔고 이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우리는 인간 존재의 ‘텔로스’(목적/계획)와 번영을 위한 규범에 관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흡수한다.

### 1. 나는 망가진 존재다. 고로 나는 쇼핑한다.

광고에서 우리를 향해 미소 짓는 얼굴이나 시트콤 세상을 살아가는 부자들을 생각해 보면 소비주의 문화가 장밋빛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무제한적 낙관론 문화라고 생각하기 쉽다. 쇼핑몰 의례의 중요한 요소 - 고백이 아니라 소비로 표출되는 깨진 세상에 대한 쇼핑물식 이해 -를 놓치고 있는 셈이다.

## 2. 나는 다른 이들과 함께 쇼핑한다.

소비주의가 개인주의 곧 자기중심주의와 자기도취의 표현이라는 말은 이미 진부한 표현이 되었다. 하지만 이 말은 쇼핑몰의 예전에 수반되는 일종의 관계성과 사회성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른다. 쇼핑몰에 가는 것 자체가 사회현상, 즉 다른 이들과 함께 하는 것, 심지어는 다른 이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 하는 행동처럼 보일 때가 많다.

## 3. 나는 쇼핑한다 (쇼핑하고 또 쇼핑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시장이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 안에서, 그것을 통해서 일종의 구속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다. 재화와 서비스가 당신을 구원할 것이다.

## 4.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

소비의 예전은 우리로 하여금 창조세계를 파괴하는 생활 방식을 욕망하게 만든다.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과 공유할 수 없는 생활 방식을 욕망하게 하며 특권과 착취의 체계를 만들어 낸다. 다시 말해서, 이 왕국의 전망을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이를 독점하는 것이다. 쇼핑몰의 예전은 불의한 습관과 실천을 조장하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가 그런 의문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막으려 한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라. 그냥 소비하라.

# II.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사랑하는 것들

## 1. 사랑은 습관이다.

사랑은 숨을 쉬거나 눈을 깜빡이는 것처럼 많은 경우 의식적 자각이라는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은 채 우리에게 방향을 지시하고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습관이 의식 아래에서 작동하는 무의식적인 것처럼 습관화의 과정도 무의식적이며 은밀하다. 우리가 문화적 실천들을 예전으로 인식하지 않을 때, 이것들이 그저 우리가 하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에게 무언가를 행하는 행위임을 깨닫지 못할 때는 특히나 더 그렇다.

## 2. 우리는 종종 습관의 힘을 과소평가한다.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직관과 기분, 즉 우리 뱃속에 새겨진 일종의 노하우로 세상에서 길을 헤쳐 나간다. 사랑하는 존재 곧 욕망하는 피조물이자 예전적 동물로서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일차적 지향은 지적이라기보다는 직감적이다.

### 3. 심리학자들은 습득된 무의식적 습관을 ‘자동성(automaticities)’이라고 부른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를 ‘제 2의 천성’이라고 부른 것과 동일한 이유이다. 즉 우리가 그에 관해 생각하지 않은 채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당신이 만 16세 생일에 면허증을 받은 날부터 수년 동안 운전을 해 왔다고 생각해 보자. 때는 목요일 오후. 직장에서 매우 힘든 회의를 마치고 이제 막 나왔다. 최악의 기분으로 일과를 마쳤다. 곧장 주차장으로 가면서 회의 장면을 차례로 곱씹는다. 당신을 화나게 한 동료와 당신을 배반한 또 다른 동료, 이 모든 얽히고설킨 관계를 까맣게 모르는 듯한 상사를 떠올리자 다시 피가 끓기 시작한다. 당신은 이제 이를 갈면서 당신이 그때 어떤 말을 했어야 했는지 생각한다. 그 와중에 당신은 이미 주차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집으로 운전해 가고 있다는 것조차 기억하지 못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오랜 시간에 걸쳐 운전해 필요한 습관이 너무 자주 반복되어서 이제는 무의식에 자리 잡아 자동성이 되었다.

### 4.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의식적인 판단과 반응의 전체적인 그물망이 이미 마련되어 있어서,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위치와 방향을 잡아 준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성품은 운명이다.” 성품은 당신이 습득한 성향(덕과 악덕)의 그물망이며, 이것은 자동성으로 작동하여 당신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게 만든다.

## Ⅲ. 무엇을 사랑하는가? – 다시 사랑은 습관이다.

### 1. 당신이 무엇을 사랑하는지와 관련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라.

사랑을 형성하는 실천을 “예전”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당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다른 신들을 예배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현대의 다양한 문화적 예전은 당신이 무심코 행하는 일회성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차원에서 이런 문화적 예전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행하는 형성적 실천이며, 무의식적이지만 효과적으로 당신의 마음이 시온의 노래가 아닌 바빌로니아의 노래를 향하게 만든다. (시 137편을 찾아 읽자).

### 2. 당신은 ‘텔로스’(인생의 목적)를 무의식적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사랑은 습관이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수면 아래서 작동한다. 당신의 사랑은 습득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무의식적이다.

#### IV. 결론 – 삶의 예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라.

1. 우리가 습관의 피조물임을 깨닫는다면, 유혹이 나쁜 생각이나 잘못된 선택의 문제가 아님을 깨달을 것이다.  
오히려 잘못된 형성과 잘못 잡힌 습관의 문제인 경우가 많다.
2. 삶에서 매일 반복하는 예전(습관, 버릇, 태도, 일과)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주목하라.
3. 매일 성찰이란 삶에 주목하기 위한 실천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묵상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돌아보라.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감정에 대해 생각해 보라.  
그날 기억에 남는 한 가지 사건을 두고 기도하라. 그런 다음 의도적으로 내일을 내다보라.

#### V. 함께 기도하기

1. 거룩한 습관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2. 이 과정을 시작하며 성령께서 지혜와 깨닫는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3. 하루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룩한 습관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4. 속회안의 속도원들의 기도제목을 따라 집중적으로 기도합시다.

#### VI. 숙제

제 3 과, “성령은 당신이 있는 곳에서 당신을 만나 주신다” 내용을 원 교재(책)를 통하여 미리 보시거나, 설교를 통하여 정리해 보길 바랍니다.